

# 두 박완서, 제도와 젠더 혹은 디지털 작가 연구의 시좌 — 2010년대의 『여성문학연구』를 중심으로 —

최진석\*\*, 최새힌\*\*\*, 김병준\*\*\*\*, 허예슬\*\*\*\*\*, 최주찬\*\*\*\*\*, 황호덕\*\*\*\*\*

## 목차

- 서론
- 2015년이라는 '분기점'의 의미
- 『여성문학연구』의 박완서 특집 기획과 연구 쟁점의 갱신
  - 해방 이후 여성 문학 연구의 제도화와 박완서
  - 박완서 연구 방법론의 갱신: 탈이분법적 인식의 모색
- 여성 문학사 연구의 성좌: 박완서 저작 동시 인용 네트워크
- 결론

이 글은 박완서의 위상이 2010년대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산물이었다는 지점에서 착안한 연구이다. 2010년대 박완서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박완서 연구의 학술적 변동을 추적하고, 이 변동에 현대 문학 학술지의 학술 기획이 미친 영향의 정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2010년대 학술장의 흐름, 특히 2011년 박완서 타계와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가 박완서 연구에서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 글은 박완서 저작 인용 논문의 인용 빈도 변화상 분기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2015년 전과 후의 연구 경향에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 그 흐름과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통계

분석,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을 기본 방법론으로 삼되, 질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양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RI상 연구자의 성별이 학계의 박완서 연구 경향에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했다. 박완서 저작 인용 빈도 분석 결과, 2010년대 전반에는 ‘남성 연구자’들이, 2010년대 후반에는 ‘여성 연구자’들이 박완서를 많이 인용한 것이다. 이는 박완서 연구의 저작 시대 트렌드 변화와도 관계가 있었는데, ‘남성 연구자’들은 특히 2011년에 1970년대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반면 ‘여성 연구자’들은 2018년 이후부터 1990년대 소설을 인용하는 비중이 대폭 늘어나, ‘박완서 연구자’의 성비 역전이 연구 대상의 다변화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키워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15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에서 젠더 관련 키워드와 ‘노년’ 관련 키워드가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 반면, 한국 전쟁 관련 키워드의 사용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 셋째, 인용 빈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여성문학연구』가 2015년 이후 박완서 연구의 중요 거점으로 부상했음을 확인했다. 『여성문학연구』는 박완서 관련 논문이 많이 실렸을 뿐 아니라, 인용을 통해 서로 학술적으로 연결되는 박완서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낸 학술지이기도 했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2008년 이후 박완서 연구의 동향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추동한 동력으로서의 학술 기획의 존재를 시각화했다.

**논문 분야:** 디지털 인문학, 여성 문학, 학술사

**주제어:** 박완서, 『여성문학연구』, 인용, 학술지, 현대 문학, KCI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24학년도 AI융합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공동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연구교수, gkman1@hanmail.net

\*\*\* 공동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saewhite21@gmail.com

\*\*\*\* 공동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조교수, bjkim@byungkunkim.com

\*\*\*\*\* 공동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yeseul-huh@daum.net

\*\*\*\*\* 공동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cjc2851@naver.com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hodukhwang@skku.edu

## 1. 서론

지난 2024년 1월 개최된 제1회 현대문학자대회의 운영 위원회는 연구자 좌담회의 주제로 ‘학회란 무엇인가’를 채택했다. 여성 문학, 아동 문학, 웹소설, 디지털 인문학 등 현대 문학 분과 내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나눈 이 좌담회의 마지막 화두는, 학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학술적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패널 중 이해령은 이 물음에 대해 개별 연구자들에게 학회의 ‘기획’ 기능이 연구자 자신들에게 경시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학회의 많은 특집 기획이 의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개별 연구자의 연구에 기반해서 의뢰를 하긴 하지만 그 특집은 개별 연구자의 연구보다 적어도 0.5cm 더 진전된 주제로 의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학술대회의 주제는 그래도 한두 번의 회의, 적어도 두 번 이상 회의에서 결정되고 각 주제를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의 논의 과정도 수반되지요. 이것이 개별의 논문으로만 수용되고 나면 필자들은 그 논문의 기원이 애초에 무엇이었는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쓴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학회 공동의 기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좀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방편이 좀 더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sup>1</sup>

오늘날 학술지라는 제도의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특히 등재지 제도가 주는 압력으로 인해 학회와 학술지가 본래 갖고 있었

---

1 최진석·김병준·서희경·이윤희·이혜령·홍덕구, 2024, 「제1회 한국현대문학자 대회: 좌담: 학회란 무엇인가」, 『사이間SAI』 제36호, 332쪽.

던 목적, 곧 연구자들끼리의 실질적인 학술 교류 네트워크 내지 학지(學知) 생산 기관으로서 기능이 열화되고 있다는 우려는 그리 새삼스럽지도, 불온하지도 않게 되었다.<sup>2</sup>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회는 오늘날 현대 문학 관련 학지의 생산과 유통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 남아 있다. 이 글의 목적은 2010년대 후반 이후 현대 문학 학술장 내 박완서 연구 붐에 대해 조망하고, 이 연구 붐의 활성화에 학술지가 수행했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 문학 학술장을 구성하는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박완서 인용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박완서 문학 연구 및 박완서를 매개로 한 현대 문학 연구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

현대 문학 연구자들에게 박완서라는 작가가 갖는 위상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어쩌면 다소 새삼스러운 이야기일 것이다. 박완서는 해방 이후 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 2010년대 이후 가장 주목받은 작가 중 하나였으며, 관련 연구사에서도 이미 여성 문학, 모더니티, 한국 전쟁 등 해방 이후 사회적·역사적·문화적 키워드와 한국 문학의 관계를 해명할 단서를 제공한 작가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계가 박완서의 그러한 문학사적 위상을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들어서의 일이다.<sup>3</sup>

2 강수영·김보경·유현미·이송희·조승희·전준하·현수진·이우창, 2022, 『한국에서 박사하기: 젊은 연구자 8인이 말하는 대학원의 현실』, 스리চে어스, 142~143쪽.

3 잘 알려지다시피 박완서 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는 1990년대 초부터 이미 평론가들이 선도했다. 2000년대에 제출된 박완서 박사 학위 논문들의 연구사 검토가 실질적으로는 박완서에 대한 비평사의 계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박완서 대상 박사 학위 논문의 선행 연구 검토가 비평사 아닌 연구사를 함께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신현순(목원대, 2008)부터이다. 이선미, 2001,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쪽; 이은하, 2006, 「박완서 소설의 갈등 발생 요인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17쪽; 신현순, 2008, 「박완서 소설의 서

통상 박완서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2010년대 들어서야 본격화된 것은 생존 작가에 대한 연구를 삼가는 학계의 오랜 관행이 개입한 결과로 이해된다. 박완서의 사망(2011) 이후에야 연구 금기가 해제되면서 박완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2010년대 박완서 연구의 향방에 영향을 주었을 법한 변수들은 『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세계사, 2012) 및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문학동네, 2013)의 완간과 같은 출판 기획의 성사에 따른 접근성 향상, ‘페미니즘 리부트(2015~)’ 등 다수가 거론된다.<sup>4</sup>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변수의 존재만으로 박완서 연구의 양상 변화의 동력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설명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 2010년대 박완서 연구의 증가가 그저 학술장 외부로부터 발생한 변수들의 영향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에 불과했다면, 박완서를 매개로 해 수행되었던 다기한 학술적 실천들은 일종의 ‘자연 현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박완서에 대한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 학술장의 관심 증가는 단순히 관심의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박완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증가, 즉 현대 문학 연구자들이 박완서를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가 동반되었음을 의미하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특정 연구자나 특정 학술지만이 아닌 한국 현대 문학 학술장 전역에서 박완서 문학이 어떻게 인용되고 활용되어 왔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

사공간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10쪽.

4 권영빈, 한경희 등은 ‘페미니즘 리부트’를 통해 제기된 여성의 정치 주체화라는 의제의 부각, 그리고 박완서의 (특히 성평등 의제 관련) 사회 참여에 대한 재조명 등이 2010년대 후반 이후의 박완서 연구 붐의 동력이었다고 평가한다. 권영빈, 2020, 「박완서 소설의 젠더지리학적 고찰」,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쪽; 한경희, 2021, 「박완서 작가 연구: 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9쪽.

이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적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박완서 연구자를 포함한 한국 현대 문학 연구자 전반이 박완서의 저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그 방식은 200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시각화한다. 디지털 인문학은 최근 수년 사이 현대 문학 분과 내에서 매체 연구,<sup>5</sup> 학술지 연구<sup>6</sup> 등 광범한 데이터의 취급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근래에는 디지털 인문학을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작가론이나 작품론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sup>7</sup> 다만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참조 대상은 특정한 저자를 매개로 한 학술장 연구들, 곧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저작을 남겼던 저자의 저작이 특정한 학술장 내에서 검토되어 왔던 방식과 그 내역을 살핌으로써 해당 학술장의 변동 과정을 추적한 연구들이다.<sup>8</sup>

5 김병준·전봉관, 2023, 「민족, 국민, 국가: 시계열 워드 임베딩을 활용한 조선일보 기사의 민족 담론 의미 변동 추적(1920-40)」, 『현대소설연구』 제90호; 이희진·박소현·이유나·한수희·김바로, 2023,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한중 웹소설 플랫폼 비교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1호; 전성규·김병준, 2019,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통한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담론적 상관관계 연구」, 『개념과 소통』 제23호.

6 강수환, 2023, 「아동문학 연구의 지적 구조 분석(2010-2021년)」, 『아동청소년문학연구』와 『한국아동문학연구』의 저자 동시 인용망 분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33호; 이재연·한남기, 2022, 「제목과 주제어의 공기어 네트워크로 본 『상허학보』의 30년」, 『상허학보』 제66집.

7 이택·류인태, 2022, 「데이터를 활용한 한중소설 비교 연구: 이태준의 〈농군〉과 리웨잉의 〈만보산〉을 대상으로」, 『반교어문연구』 제60집; 전성규, 2024, 「데이터로 읽는 『무정』의 감정」, 『사이間SAI』 제36호.

8 정보람, 2021, 「계량적 방법을 통해 본 한국 현대 '청년문학'과 '노년문학' 연구사」,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55호; 최진석·김병준·허예슬·최주찬·황호덕, 2023, 「김윤식과 우리 시대, 인용의 인구사회학적 시좌: 현대문학연구자의 성별 및 세대 별 김윤식 저술 인용 양상 연구(2004-2019)」, 『국제어문』 제96집; 허예슬·김병준·최주찬·최진석, 2023, 「푸코의 초상: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의 푸코 인용 양상 변화, 2008-2021 KCI 등재 학술지 논문 참고문헌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제46집.

이 연구는 현대 문학 학술장 내에서 박완서가 인용되고 수용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현대 문학 연구 논문이 다수 실리는 학술지들을 추출하고, 이 학술지들에 게재된 논문 중 박완서의 저술을 1회 이상 활용한 논문을 수집했다. 이 글에서 선별한 학술지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한국어 문학 학술지 중 현대 문학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현대 문학 관련 논문을 다수 게재하는 학술지 51종이다.<sup>9</sup> 이 51종의 학술지가 200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판한 정규 논문은 총 1만 5927편이며, 이 가운데 박완서의 저작과 관련 연구를 한 편 이상 활용한 논문은 총 411편임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 411편의 논문을 통해 박완서 저작의 인용 빈도를 통계 분석하고, 박완서의 저작과 동시 인용된 저자들 간의 인용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박완서의 작

---

문학사 연구를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유럽의 디지털인문학 연구소 사례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김병준, 2024, 「디지털인문학의 미래, 스마트 빅데이터: 독일 트리어 디지털인문학 센터 CLS 연구 펠로우 후기」, 『Digital+Humanities』 제30권 제3호.

- 9 『겨레어문학』, 『구보학보』, 『국문학연구』, 『국어국문학』, 『국어문학』, 『국제어문』, 『돈암어문학』, 『동남어문논집』, 『동악어문학』, 『대중서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 『반교어문연구』, 『배달말』, 『비교문학』, 『비교한국학』, 『비평과이론』, 『비평문학』, 『사이間SAI』, 『상허학보』,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어문논집』, 『어문론집』, 『어문론총』, 『어문연구』, 『여성문학연구』, 『영주어문』, 『우리말글』, 『우리문학연구』, 『우리어문연구』, 『이화어문논집』, 『청람어문교육』, 『춘원연구학보』,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문예창작』, 『한국문학과 예술』,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민족문화』, 『한국아동문학연구』,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화』, 『한국학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어문학(구 영남어문학)』, 『한성어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소설연구』.

이 글이 주목하는 학술지의 목록에는 『대동문화연구』, 『동방학지』 등 현대 문학 연구자들 역시 다수 투고하는 범(凡)인문학 학술지들이 제외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학술지들 역시 박완서 연구 논문을 포함한 적지 않은 현대 문학 논문을 출판했다. 그러나 필자들은 이 글이 ‘현대 문학 학술장’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한, 학술지 편집 위원회와 투고자, 심사자 모두 학술지의 현대 문학 연구 ‘기획’을 의식하고 있는 지면을 통해 발표된 논문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품을 활용한 연구자 집단을 어떻게 세분화(그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그룹 간의 교류(상호 인용)는 있는지, 그리고 2015년을 전후로 해 박완서 연구 네트워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다.<sup>10</sup>

## 2. 2015년이라는 ‘분기점’의 의미

서두에서 논의했다시피 박완서 문학을 조명한 여러 선행 연구는 박완서에 대한 현대 문학 학술장의 관심이 2010년대,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대 후반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음을 지적한다. 논증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러한 논의들의 공통된 주장은 2010년대 후반 이후의 박완서 연구가 양적·질적 변화를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이다. 박완서 연구가 2015년 이후 급증했다는 사실 자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은 현대 문학 관련 학술지 51종에 실린 논문 중 박완서의 저작을 1회 이상 인용한 논문의 증감을 추적한 것이다.

<그림 4-1>을 보면 2011년과 2013년에 박완서 인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0년대 중반에 잠시 소강상태를 겪은 후 2018년 이후 2011년 수준을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현상은 박완서의 사망(2011)과 박완서 관련 문학사 기획의 활성화(2018)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완서를 인용한 연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를 토대로 이 인용 내역을 분절하면, 조금 다른 지형이 확인된다.

---

10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Python 코드, 그리고 시각화 그림 파일 등은 아래 링크에 업로드해두었다. <https://github.com/ByungjunKim/TwoParkWansu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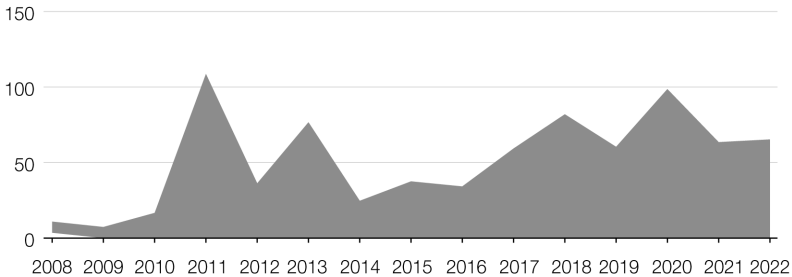


그림 4-1 박완서 인용 빈도 변화(통합)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한 변수는 연구자의 성별이다. KRI를 통해 수집한 연구자 성별 정보를 토대로 진행된 한 선행 연구는, 적어도 2015년 이후로는 성별이 현대 문학 분과 내 연구자들 소집단을 구획하는 데 있어 세대나 출신 학교 이상의 강력한 변수일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sup>11</sup> KRI의 각 연구자 항목에 기재된 성별은 연구자의 주민 등록 번호에 기반해 자동 생성된 것으로, 각 연구자의 실제 성 정체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민 등록상 성별을 기준으로 구성된 ‘여성 연구자’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성별이 유의미한 통계적 변수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주민 등록상 성별이 ‘유의미함’을, 곧 그것이 학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을 증명함으로써 성별 이분법을 본질주의적으로 강화하는 데에 있지 않다. 물론 주민 등록을 통해 구현된 ‘여성 연구자’라는 범주는 법률과 행정에 근거한 관습적이며 ‘허구적’인 범주다. 하지만 그것은 그와 동시에 작동하는 ‘허구’이다. 이 연구는 ‘여성’이

11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학벌, 세대, 성별 등 여러 인구 사회학적 정보 중에서 김윤식 저술의 인용 가능성과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이었다. 최진석·김병준·허예슬·최주찬·황호덕, 2023, 앞의 논문, 330~334쪽.

“억압적 이성애중심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적 범주”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이라는 범주를 여성 간 차이를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테레사 드 로레티스(Teresa de Lauretis)의 주장, 그리고 페미니즘의 역할이 “여성이라는 범주의 존재론적 당위성”을 관철시켜 온 권력의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주장을 따른다.<sup>12</sup> ‘여성 연구자’라는 허구적 범주가 의미를 갖게끔 하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아가 ‘여성’이라는 장을 매개해 관철되어 온 학술적·사회적 의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이 글은 학술장에서 ‘여성’이라는 범주가 나타내는 특징과 관련되어 작동하는 권력을 해석하고 ‘여성 연구자’ 그룹 내의 세부적인 차이를 주목해 일군의 한국 현대 문학 연구자들이 사회적 의제와 교호하고 때로 이를 견인하려 했던 양상을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필자들은 KRI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해 박완서 저작을 인용한 논문들을 연구자의 (KRI상) 성별에 따라 특정했다. 조사 대상 중 약 10% 정도는 성별을 미기재해 확인할 수 없었는데, 성별 미기재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sup>13</sup> <그림 4-2>는 박완서 저작의 인용 빈도를 인용자의 성별에 따라 분리한 것이다.

‘남성 연구자’들의 박완서 인용은 2010년대 초, 특히 2011년과 2013

12 윤조원, 2009, 「페미니즘과 퀴어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7권 제1호, 134, 142쪽.

13 이 지점은 필자들이 투고 전 주변 연구자들에게 이 글의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즉, KRI상에서 성별 표기 수단으로 ‘남/여’만을 제시하는 상황 속에서 ‘성별 비공개’를 선택한 결정의 함의를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현재 KRI 시스템상 연구자가 자신의 성별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완전 비공개를 선택해야 한다. 연구자가 KRI 프로필의 완전 비공개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을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저자들의 논문을 성별 관련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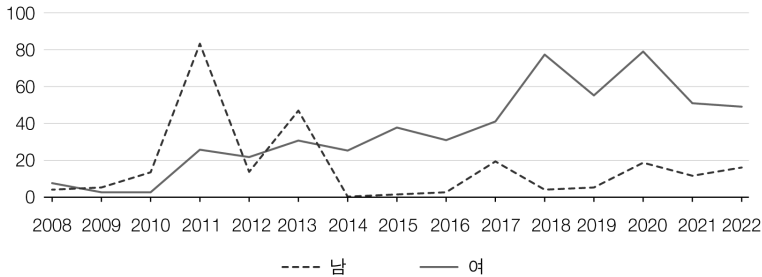


그림 4-2 박완서 인용 빈도 변화 추이(성별 분리)

년에 집중되었다. 반면 ‘여성 연구자’들의 박완서 인용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보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18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그림 4-2>는 2010년대 전반에 박완서의 저작을 많이 인용했던 연구자들과 2010년대 후반에 박완서의 저작을 많이 인용했던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그룹을(적어도 성별에 따라 구획되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2010년대 이후의 박완서 연구 붐이 단순히 박완서의 사망에 따라 형성되었다가 잠시의 ‘침체기’를 겪은 후 다시 ‘회복된’ 것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말해준다.

박완서 연구자의 성비 전환은 박완서 연구의 흐름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림 4-3>과 <그림 4-4>는 각각 ‘여성 연구자’와 ‘남성 연구자’의 박완서 소설 인용을 발표 시기별로 구획한 것이다. 박완서가 발표한 작품들은 단편 소설 113편, 장편 소설 18편이다. 이 소설들을 초출 연도(단편) 또는 연재 시작 연도별로 나누어 ‘1970년대 소설’, ‘1980년대 소설’, ‘1990년대 이후 소설’로 구획했다.<sup>14</sup> 이를 토대로 해

14 필자들은 이를 위해 별도의 ‘박완서 소설 연보’를 작성했다. 동화나 콩트는 조사 대상 및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때 통상 작가의 전작을 구획할 때 사용하는 ‘전기/후기’의 이분법이나 ‘초기/중기/후기’의 삼분법 대신 연도별로 구획한 것은, 아직 박완서 연구자들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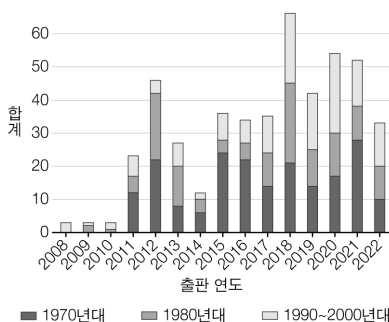


그림 4-3 연도별 박완서 소설 인용 빈도  
(‘여성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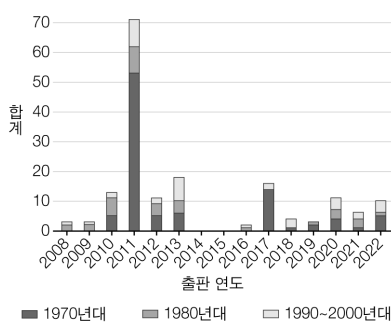


그림 4-4 연도별 박완서 소설 인용 빈도  
(‘남성 연구자’)

연구자의 성별에 따른 인용 횟수를 분석했다. 소설만을 따로 계산한 것인 만큼, 박완서의 모든 저작에 대한 인용을 대상으로 했던 〈그림 4-2〉와는 수치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앞의 두 그래프는 ‘여성 연구자’와 ‘남성 연구자’의 박완서 인용 양상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드러낸다. 2011년에는 ‘남성 연구자’들의 박완서 소설 인용이 거의 대부분 1970년대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여성 연구자’들은 2010년대 들어 박완서 소설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1980~2000년대 소설 역시 비교적 많이 인용해 왔다. 더해 2018년 이후부터 ‘여성 연구자’들 사이에서 박완서의 1990년대 소설을 인용하는 비중이 대폭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연구자’들의 논문과 ‘여성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표상된 박완서가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2010년대 현대문학 연구자들의 박완서 인용 증감 추이는 단순

이에 박완서의 문학적 활동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 논의에서는 ‘1980년대 박완서 문학’에 대한 재조명이 시도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단은 발표 시기별로 구획하는 방법을 택했다.

표 4-1 박완서 인용 논문에서 시기별로 두드러지는 키워드들

No	2008~2014년		2015~2022년	
	Specialized_Word	TF-IDF_Difference	Specialized_Word	TF-IDF_Difference
1	근대	3.568375937	여성	-11.59886042
2	문화	3.034618008	노년	-6.228181555
3	북한	2.758861587	돌봄	-5.088367457
4	소녀	2.594996598	문학	-4.873009607
5	농촌	2.284373289	죽음	-3.911940058
6	해석	2.23289063	인물	-3.874480364
7	오빠	2.128235847	주체	-3.866672279
8	폰트	2.124383559	치매	-3.852592444
9	장르	2.116747833	정치	-3.801338678
10	담론	1.858705769	정체	-3.461002257
11	번역	1.843051538	중산	-3.44561101
12	생명	1.693410512	감정	-3.374068196
13	비평	1.692992974	가족	-3.364480588
14	어른	1.68822951	자신	-3.227881984
15	제도	1.645701598	냉전	-2.949673472
16	대학	1.624246729	아버지	-2.901275667
17	망인	1.608705674	남성	-2.71901698
18	서술	1.586425879	작가	-2.663870329
19	유년	1.544133454	역사	-2.635938972
20	표상	1.537786573	세대	-2.616753946

히 2010년대 초반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수년간의 소강상태를 겪다가 2010년대 후반에 들어 '회복'되었다는 식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보다 박완서가 사망하고 추모 사업이 이어졌던 2010년대 초반에는 박완서의 1970년대 소설에 대한 관심이 컸다가 2010년대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인용이 적었던 1980년대 이후 소설의 인용이 증가함으로써 박완서 연구의 트렌드 자체가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완서 연구 트렌드의 변화는 박완서 인용 논문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들은 박완서 인용 논문의 제목, 주제

어, 그리고 초록의 데이터를 추출한 후, 2008~2014년에 발표된 논문과 2015~2022년의 논문에서 각각 두드러지게 사용된 명사를 확인했다.<sup>15</sup> <표 4-1>은 각 시기에 발표된 논문들의 제목, 주제어, 초록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어휘를 각각 20위까지 추출한 것이다. 단, 이 표에 기재된 단어는 양 시기 모두 빈번하게 사용된 명사들을 제외함으로써 두 시기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만든 것이다. 가령 ‘박완서’라는 키워드는 2008~2014년에 발표된 논문과 2015~2022년에 발표된 논문 양측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그렇기에 두 시기의 변별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글에서는 박완서라는 키워드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확인되는 지점은 2015~2022년의 구간에 ‘여성’(1위), ‘남성’(17위) 등의 키워드가 포착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젠더 관련 키워드가 2015년 이후로 박완서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년’(2위), ‘돌봄’(3위), ‘치매’(8위) 등 키워드의 등장 역시 참고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이후 박완서 문학 연구 내에서 노년 문학 연구라는 영역이 새롭게 부상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sup>16</sup>

15 이상의 작업은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시행해 박완서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밑작업이기도 하다. 토픽 모델링은 보통 신문 기사나 서적 등 대량의 말뭉치에서 경향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연구 경향을 거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허예슬·김병준·최주찬·최진석, 2023, 앞의 논문, 320쪽.

16 이 연구는 『여성문학연구』의 박완서 연구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노년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할 여유가 없다. 다만 ‘노년 문학’ 연구가 2015년 이후 새롭게 부상한 연구라는 점,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한 ‘젠더’ 관련 연구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을 점하진 않았다는 것 정도는 언급하고자 한다. 노년 문학 연구의 부상은 이 글의 <그림 4-6> 및 <표 4-4> 참조. 노년 문학 연구와 젠더 관련 연구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김미영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김미영은 박완서의 1980년대 소설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1984)과 「저물녘의 황혼」(1985)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여성의 서사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주체로도 고려되지 못한 노년의 하층 계급 여성”의 정체성과 돌봄 노동의 관계를 고찰한다(김미영, 2019, 『박완서 소설 속 돌봄 인식 방식 연구』, 『어문논집』 제72집, 209쪽). 5절에서 분석한 인용 네트워크에서 김미영

다른 하나는 한국 전쟁 관련 키워드의 영향력 축소다. 특히 2008~2014년의 7위에 등재된 ‘오빠’와 2015~2022년의 16위에 등재된 ‘아버지’의 대조에 주목해 볼 일이다. 잘 알려지다시피 박완서의 소설에서 ‘오빠’와 ‘아버지’는 각기 다른 위치를 차지해 온 인물 유형이다. “박완서 문학의 핵심에는 한국전쟁이 놓여 있고, 그 핵심에는 오빠의 기억이 놓여 있다”라는 이경재의 지적처럼, 박완서 소설에서의 (친)오빠는 작가-서술자와 한국 전쟁을 매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물론 ‘아버지’ 역시 한국 전쟁 관련 박완서 소설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받은 키워드 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라는 키워드와 가장 친밀성을 갖고 있는 주제는 가부장제 연구였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한국 현대사 관련 키워드의 등장 빈도 감소 추이가 탈역사적 관점에 기반한 연구가 증가했다는 맥락을 가지지는 않는다. ‘정치’, ‘중산층’, ‘냉전’, ‘역사’ 등 키워드의 등장은 젠더 연구의 증가와 함께 역사, 정치적 주제가 함께 연구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여성, 가족, 노년, 질병, 정치와 같은 사회사적 변화가 문학적 의제를 추동하고 점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이후의 변화의 경우, 한

---

은 노년문학 연구자 그룹의 일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례는 2015년 이후 젠더에 대한 관심과 노년에 대한 관심이 서로 분리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 지점은 박완서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외국 저자의 저술에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과 『노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후속 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 17 대표적인 사례로 유인혜, 2020,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근접성 없는 공동체와 친밀성의 테크놀로지: 『아주 오래된 농담』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88집; 정미숙, 2016,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정우경, 2021,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 나타난 ‘돌봄 주체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3집; 정연희, 2022, 「박완서 단편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여성가족로맨스’와 돌봄의 영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87호.

국 인문학 지원 기관들의 거버넌스 변화—‘사회 문제 해결’에의 요구를 문학 내적으로 수용하려 할 때 노년, 돌봄, 치매, 가족과 같은 화소를 매개로 박완서 소설이 재검토되었던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2018년 한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노년, 돌봄, 치매, 가족 의제가 부상했으리라 여겨진다.

이상의 검토는 하나의 작가에 대한 학술적 상(像)이 연구자의 구성 및 세대 변화, 사회적 의제의 변동, 특히 젠더적 요소의 개입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것은 사회적 의제의 변동보다 연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다. 어느 사회적 현상이건 그것을 구성하는 문화적 토대의 영향은 교차적일 수 있기에, 특정 의제에 대한 학술장의 입장을 하나의 견해로 인격화(단순화)해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 3. 『여성문학연구』의 박완서 특집 기획과 연구 쟁점의 갱신

#### 1) 해방 이후 여성 문학 연구의 제도화와 박완서

학술지에 논문을 실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학술적 성과를 갱신해 나가기 위한 행위이지만, 동시에 자기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이 연구 공동체 및 전반적인 학계에 연대감을 강화하는 인정의 형태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sup>18</sup> 이때 학술지는 연구자와 학계를 매개하는 수단이자,

---

18 샤를로테 블로크, 2019, 『열정과 망상: 학계의 감정문화』, 김미덕 역, 갈무리, 241쪽 (Charlotte Bloch, 2019, *Passion and Paranoia: Emotions and the Culture of Emotion in Academia*, Routledge).



‘학계’라는 공동체의 현현이기도 하다. 2010년대 들어 박완서에 대한 지식의 생산이 연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함은, 그 지식이 평론만이 아닌 논문이라는 새로운 유통 매개를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연구’라는 새로운 지평으로의 경사(傾斜)는 박완서에 대한 ‘학지’의 생산 거점이자 유통 경로로서 학술지가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10년대 박완서 연구를 견인한 학술지는 단연 『여성문학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여성문학연구』는 2010년대 들어 박완서 관련 특집을 두 차례나 편성한 유일한 학술지이자 박완서 특집을 기획한 유일한 학술지였다. 『여성문학연구』가 특집의 주제를 특정 작가에 헌정한 것은 1990년 창간 이래 단 두 번, 즉 2011년과 2018년에 박완서 특집을 마련할 때뿐이었다.<sup>19</sup> 또한 한국여성문학학회가 박완서 문학 특집을 마련했던 2011년을 전후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 다른 현대 문학 관련 학회들의 상황과 비교하면, 박완서에 대한 『여성문학연구』의 관심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2>는 2004~2014년 사이에 박완서의 저작을 인용한 논문이 가장 많이 수록된 학술지 상위 6종을 정리한 것이다.

2008~2014년 사이의 인용 빈도 상위 학술지 중에서는 2011년의 『여성문학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성문학연구』 역시도 2011년을 제외한다면 타 학술지에 비해 박완서에 많은 관심을 가진 편은 아니었다. 오히려 『여성문학연구』로서는 박완서 특집을 편성하기까지 했던 2011년이 박완서에 이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인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오자은, 2019,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현재성」, 『여성문학연구』 제48호, 42쪽.

표 4-2 박완서 인용 논문이 가장 많이 실린 학술지 6종(2008~2014)

학술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교문학	1			2		2	1	6
비평문학		1	3	1		1		6
여성문학연구		1	1	6	1	1	2	1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	2	1	2	1	8
현대문학이론연구	1	1	2	2	1	3		10
현대소설연구	1	2		1		1	1	6

또한 위의 표는 박완서의 타계 이후 박완서의 저작을 인용한 논문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15년 이후 『여성문학연구』와 함께 박완서 연구 논문의 주요한 생산거점 중 하나로 부상하는 『현대소설연구』 역시 2008~2014년 구간에는 박완서에 그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나마도 이 시기 『현대소설연구』에 실린 박완서 인용 논문들은 모두 박완서 소설을 참고 자료 중 하나로 활용한 논문일 뿐, 박완서 소설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 논문은 없었다. 이 시기에 박완서의 타계라는 사건에 반응한 현대 문학 학술지는 사실상 『여성문학연구』 한 종이었던 셈이다.

잘 알려지다시피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특집 〈한국근현대사와 박완서〉는 박완서 추모 학술 대회 〈한국 근대사와 박완서〉(2011.4.30.)의 성과 일부를 취합한 것이다.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이 학술 대회에는 문학 전공자가 아닌 연구자(김동춘, 이임하, 조한혜정)나 ‘남성 문학 연구자/비평가’(이수형, 황종연) 역시 다수 발표자나 토론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 학술 대회의 주축은 1960, 1970년대생 ‘여성 문학 연구자’들이었다.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특집의 필진 역시 대부분 이들로 구성되었다.

한국여성문학학회는 학술 대회의 ‘모시는 글’을 통해 박완서 추모 사업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한국 근대사와 박완서’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는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작가 박완서 선생님을 추모하고 작품세계를 재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략) 저희는 무엇보다 박완서의 문학세계가 분단과 냉전의 한국사, 그 속에서 펼쳐진 일상과 풍속의 역사적 문화사적 보고이자, 한국의 여성주의와 여성학이라는 새로운 지적 패러다임의 장을, 지식인들에게는 물론 독자대중들에게도 개시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완서의 삶과 문학이 동아시아의 공동경험이기도 했던 식민지 경험과 냉전, 근대화를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표현으로 재현한 범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박완서 문학이 여성적 정체성을 매개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의제를 충족시켜 왔다고 보고, 박완서 문학을 학제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 연구자뿐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을 발표자와 토론자로 모시었습니다. 모쪼록 동학 여러분께서 발걸음 하셔서 더욱 진지하고 열띤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sup>20</sup> (강조는 인용자)

박완서 기념 학술 대회가 문학만이 아닌 역사학, 인류학, 여성학, 사회학 등 인접 분야 연구자들과의 공조를 통해 마련되어야 했던 것은 여성문학학회의 설명처럼 박완서 문학이 미쳤던 광범한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이 학술 대회가 갖는 의의는 박완서 문학의 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위의 취지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박완서 문학의 학술 연구 대상으로서의 위상을 굳힌 것이야말로 이 학술 대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기획에 참여했던 문학

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한국 근대사와 박완서: 기획 및 초대의 말씀」.

연구자들 중에서도 박완서 문학을 자신의 전문 분야로 채택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1년 특집 참여자 중 박완서 작가론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연구자는 발표자, 사회자, (학술 대회에서의) 토론자를 통틀어 단 여섯 명뿐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발표자들에게 이 학술 대회의 발제문은 자신의 첫 박완서 연구 성과이자 — 2024년 현재 시점으로는 — 마지막 박완서 논문이었다.<sup>21</sup> 말하자면 2011년 학술 대회는 박완서 문학에 대한 연구 경험이 — 적어도 2018년 학술 대회에 비해 —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던 셈이다.

이와 같은 인선은 2011년 당시만 하더라도 박완서 연구의 저변이 그리 넓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sup>22</sup> 예컨대 가장 많이 읽혀온 한국 현대 소설사 중 하나에서는, 박완서가 여성 문학가로서는 이례적으로 “분단·이산 소설의 전개”라는 “소설사의 주류의 한 가닥” 속에서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시각의 폭좁음”이나 “천의무봉이라 말해지는 문제”<sup>23</sup>와 같은 ‘여성 문학’에 관한 관습적 범주화 및 내면 성찰의 카

21 특집 필진 중에서는 이미 ‘박완서 전공자’였던 이선미만이 이 특집 이후에도 박완서 연구를 이어나갔다. 이선미, 2014, 「박완서 소설의 ‘공모’ 의식과 마음의 정치: 1987년 이후와 박완서 소설의 1970년대 서사」, 『반교어문연구』 제37집; 이선미, 2021, 「‘부역(협)의 자’ 서사와 냉전의 마음: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빨갱이’ 담론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문학연구』 제65집; 이선미, 2023, 「속물(지배)사회, 허위의식, 말뚝의 총질: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허위의식’ 서사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94집.

22 전창호(한남대 국문, 1993), 이선미(연세대 국문, 2001), 이은하(명지대 문창, 2005), 신영지(성균관대 국문, 2005), 신현순(목원대 국문, 2008), 오준심(백석대 기독교상담심리학, 2009) 등. 그나마 애초에 국문학 전공자가 아니었거나 2011년에 이미 여러 이유로 박완서 연구나 연구 자체를 중단한 이들도 있어, 현실적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도 기획 참여를 제한할 수 있었던 인물은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 김윤식·정호웅, 1993, 『한국소설사』, 예하, 439쪽. 이 소설사는 여성 문학을 무시간성과 내면의 차원에서 주변화하면서도 박완서에 한해 가족사로서의 민족사의 가능성에 주목해 주류 문학으로 고평가하는데, 다만 그 ‘폭좁음’을 지적하며 일정한 유보를 단다. 반면 이 폭좁음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여성, 삶, 가족, 공간, 노년, 자신 등의 시민적 삶의 세

테고리하에서 제한적으로 평가되어 왔음을 상기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제한된 평가를 돌파하는 새로운 ‘박완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10년대 들어서, 곧 2011년 학술 대회가 개최된 이후의 일이다.<sup>24</sup>

『여성문학연구』가 마련한 박완서 추모 학술대회에 ‘박완서 전공자’는 아닌 문학 전공자들, 그리고 역사학·사회학·문화 인류학 등 타 분과 학문 전공자들이 기용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박완서 문학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검토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곧 박완서 문학에 대한 주된 평가의 영역을 ‘문학 평론’으로부터 ‘학술 연구’로 이행시킬 수 있는 자의 위치를 부여받았다.

이 학술 대회는 1990년대 이래로 문학사 서술의 형식을 통해 단편적으로 시도되어 왔던 박완서 평가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가령 이상경은 김윤식·정호웅, 권영민 등 기성 문학사가들이 박완서의 이미지를 ‘1970년대 (여성) 작가’로 ‘한정’하려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박완서의 1990년대 문학에 대한 조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sup>25</sup> 그것은 물론 기존 박완서 연구의 편향된 시각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이상경의 발언은 이미 박완서의 1980, 1990년대 문학에도 넓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여성 연구자’들의 경험을 대변한 것이기도 했다.

---

부와 관련된 키워드들과 함께 재평가된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조. 황호덕, 2019, 「김윤식의 문학 이유, 가치중립성으로서의 근대론과 젠더 트러블: 1990년대, 김윤식의 비판적 전회와 여성작가론을 실마리로」, 『구보학보』 제22집.

24 물론 그것은 학계에서 박완서 문학의 가치를 경시했기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박완서의 활동기와 겹치는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의 여성 문학사 연구가 활성화된 것 자체가 2010년대 이후부터라는 것도 감안될 필요가 있다.

25 이상경, 2011,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 『여성문학연구』 제25호, 10~13쪽.

다만 2024년 현 시점에서 돌이켜본다면 2011년 특집에 실린 박완서 연구는 1990년대에 제기되었던 ‘여성적 글쓰기’ 담론 이후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갱신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박완서 문학이 여성적 정체성을 매개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의제를 충족”시켰다고 평가한 대목에서도 그것이 확인된다. 이상경은 박완서가 1990년대의 여성 문학을 선도하면서 여성 문학을 둘러싼 논쟁적 논의를 선도했다는 점, 그리고 박완서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적 논의는 1990년대 ‘여성 문학’ 논의를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한다.<sup>26</sup> 그러나 이상경은 박완서 작품에 대한 페미니즘적 논의를 리얼리즘에 반대되는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논의로 규정하는 한편 ‘1990년대에 맞선 작가’ 박완서가 역사와 기억에 대해 논의한 작품들을 주목한다. 그것은 2010년대 초반의 이상경이 1990년대 ‘여성 문학’ 논의에서 이미 비판되었던 모순적 이분법, 즉 역사성과 미시성의 어느 극으로 독법을 끌어당기는 읽기의 인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27</sup> 남성과 여성을 역사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으로 이분하는 도식의 극복은 그 도식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인식론적 틀의 제시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 2) 박완서 연구 방법론의 갱신: 탈이분법적 인식의 모색

2018년 겨울, 한국여성문학학회는 『여성문학연구』 제45호의 특집 주제로 〈1980년대, 박완서 문학과 사회〉를 편성한다. 이 특집은 같은 해

26 이상경, 2011, 앞의 논문, 12~18쪽.

27 1990년대 ‘여성 문학’ 논의에서의 이분법적 도식에 대한 비판은 김양선, 2006, 「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비평의 쟁점과 과제」, 『안과 밖』 제21호 참조.

11월 10일 시행된 동명의 학술 대회에 참여했던 발표자 및 토론자 들의 박완서 연구 성과들을 모아 편성한 것이었다. 2011년의 박완서 특집이 해방 이후 여성 문학사의 제도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2018년의 박완서 특집은 1980년대 여성 문학사 연구의 제도화를 위한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물론 2018년의 박완서 특집이 갱신한 것은 비단 연구 대상 시기만이 아니었다. 여러 선행 연구가 지적하다시피 이 특집은 1980년대 여성 문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여성적 글쓰기 담론에 기반한 여성 문학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 문학’과 정치 사이의 거리를 재 설정하고자 한 기획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불과 7년 사이에 현격할 정도로 달라진 여성 문학 연구 환경, 그리고 그 변화에 수반해 일어난 여성 문학 연구자 자신들의 여성 문학관(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역시 『여성문학연구』가 편성한 두 번째 박완서 기념 학술 대회의 ‘기획의 변’에서도 확인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완서의 1980년대 이후 문학 작품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문학장의 인정구조 속에서 박완서 문학의 방향성은 특히 페미니즘 및 냉전해체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무르익었습니다. 박완서 문학의 빛나는 지점은 역사·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담아 내는 사회비평적인 시선을 서사적으로 끊임없이 사유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문학적 중심을 우뚝 세웠다는 점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완서 문학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는 발견과, 박완서 문학 연구

28 오자은이 이미 지적했다시피 한국여성문학학회는 『여성문학연구』 제48호 전후로 일련의 ‘1980년대 문학사’ 관련 학술대회 및 특집을 기획했다. 오자은, 2019, 앞의 논문, 44~45쪽.

가 이 점을 주목해서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들은 80년대 이후 형성된 박완서 문학의 해석상의  
관점 차이들을 포함해 냉전해체 시기에 박완서 문학이 추구한 성찰적 주제를  
탐색합니다. 그동안 박완서 문학연구가 해석상 협소한 관점을 반복해온 한계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열어젖히고 박완서 문학연구를 보다 깊이 있고 확장된  
국면으로 비약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입니다.<sup>29</sup> (강조는 인용자)

2018년 특집 역시 박완서 연구의 학술적 정당성을 역사, 사회 등의 키워드와 결부시키려 한다는 점은 2011년 특집과 비슷하다. 그러나 2018년 특집의 기획자들에게 역사, 사회, 정치는 더 이상 ‘-학’이 아닌 ‘-적 상황’의 형태로 소환된다. 곧 ‘역사/사회/정치적인 것’은 더 이상 박완서 연구라는 양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외부의 학술적 권위가 아니라, 박완서 자신이 직접 개입하고 변화시킴으로써 ‘-학’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맥락(context)’이자 증거로서 규정된다.

2010년대 후반의 박완서 문학 연구의 주요한 방법론은 더 이상 외부의 학술적 권위와의 연계를 통해 박완서 연구의 학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기의 박완서 연구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박완서 연구 방법론의 갱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2010년대 이래 박완서 ‘연구’의 축적에 힘입어 가능해진 것이기도 하다. 2018년 특집의 필진 여섯 명 중 세 명(김은하, 오자은, 우현주)이 박완서 문학을 박사 학위 논문의 소재로 택했던 연구자라는 것은 그래서 상징적이다.<sup>30</sup>

2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1980년대, 박완서 소설과 사회: 초대 글」.

30 1993년 이후 2011년 초까지 18년 동안 여섯 명만이 배출되었던 ‘박완서 박사’는 7년 사이 13명이 추가로 배출된 상태였다. 곧 박완서 특집의 필진의 상당수를 박완서 연구 경험자로 구성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해방 이후 여성 문학 연구 제도화의 진전 정도를 가



표 4-3 박완서 저작 인용 논문이 가장 많이 실린 학술지 5종(2015~2022)

학술지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여성문학연구	1	2		10	4	3	4	5	29
한국문예비평연구	1	1	3		2	2		1	1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	1	1		3	1	2	1	13
한국현대문학연구	3		1	2		3	2	2	13
현대문학이론연구	3	1	1	3	3		1		12
현대소설연구	3	1	6	5	1	6	4	8	34

또한, 2015년 이후 한국 문학 연구자들의 페미니즘적 문제의식 강화라는 변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는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한국 문학의 위대한 전통, 정전을 재해석하고 문학사를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움직임을 촉발했다.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sup>31</sup>은 이런 시도를 선언적으로 담은 저작이다.<sup>32</sup>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남성 중심적 정전을 지금의 시각으로 비판하는 작업 또는 여성 서사를 문학사에 기입하는 작업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당대의 역사와 맥락을 고려해 선행 연구의 물젠더적 시각을 보완하며 분석하려는 시도로 나아갔다. 2018년 『여성문학연구』 특집에 수록된 논문들이 기존의 박완서 연구에서 형성된 해석의 프레임을 벗어나 다층적인 한편 보다 젠더화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은 갱신된 문제의식의 반영을 보여준다.

능케 한다.

31 권보드래 외, 2018,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32 김양선, 2022,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여성문학의 계보 만들기: 한국여성문학사와 여성 문학 앤솔로지의 필요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5호, 87쪽.

#### 4. 여성 문학사 연구의 성좌: 박완서 저작 동시 인용 네트워크

통상 학계에서의 선행 연구에 대한 평가는 논문 서론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연구사 검토는 연구사의 흐름을 계보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하고, 또 각 연구가 연구사 전통 내에서 갖는 위치를 가늠하기 위한 작업 중 하나이다. 박완서 연구 논문에서도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지난 연구사, 특히 2010년대 이후 연구사의 성취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 검토의 방식은 그 특성상 ‘대표적’ 연구자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기 쉽다.<sup>33</sup> 이 연구는 박완서 연구자 간의 인용 네트워크를 가시화함으로써 어떠한 연구자‘들’이 박완서 연구의 새로운 국면에 개입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박완서 연구의 인용 빈도와 상위 키워드, 그리고 학술지 기획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수행했던 작업들은 대부분 빈도수를 기준으로 한 계량적 접근에 근거한다. 즉,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얼마만큼의 빈도수를 확보했는지를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각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박

---

33 가령 한경희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에 영향을 받은 한국 문학 학술장 내 박완서 연구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과정이 “박완서가 여성 작가로서 행했던 사회 참여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한경희는 그 예시로 이해령의 「빛나는 성좌들」을 들면서(이혜령, 2016,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제47집), 이 논문이 “1980년대 민중운동과의 연계 속에 여성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 맥락 속에서 창작되었던 박완서의 문학들을 새롭게 독해한다”라고 평가한다(한경희, 2021, 앞의 논문, 9쪽). 한경희의 이러한 평가는 이해령의 논문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대표한다는 평가를 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특정 연구자나 논문에 특정 연구 경향의 ‘대표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역으로 그 대표자의 얼굴을 통해 특정 연구 경향의 전체적 양상을 읽어내려 하는 독법이기도 하다.

완서의 저작과 동시 인용된 저작의 저자들 간 인용 네트워크를 검토함으로써, 인용/피인용이라는 양식을 통해 각각의 필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 분석 방식을 통해 각 시기별 상위 주제와 관련된 경향을 어떤 이들이 견인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의 그룹 재편성 등과 같은 연구 네트워크의 변동을 분석해 연구 경향성의 변화와 소집단 간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들은 박완서의 저작을 인용한 연구자들 중에서도 상호 간의 인용/피인용 횟수의 합이 20 이상인 연구자 이름을 라벨링해 추리고, 그중에서도 상호 인용이 빈번한 이들을 소집단으로 나누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박완서의 문헌을 인용했으되 다른 박완서 연구와 연결되지 않는 연구를 제외한 박완서 관련 연구자 간의 상호 관계를 특정할 수 있어, 연구 주제와 연구자 상호 간의 연동을 성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아래 제시하는 그림이 연구자 간에 '상호 협업' 네트워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동 기간 내에 가장 많이 피인용된 저자들 간의 관계이기에, 일방적으로 많이 인용된 저자가 포함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sup>34</sup>

34 가령 각 그룹마다 거의 한 명씩 포함되어 있는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시몬 드 보부아르, 이푸투안(Yi-Fu Tuan),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주디스 버틀러,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등의 외국인 저자들이 그런 예이다. 다만, 어쩌면 각 시기 각 그룹의 집단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이들은 이 해외 저자들일 수 있다. 이 외국인 저자들은 면면에서 확인되다시피 한국(문)학 연구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과 관련된 참조점을 제공해 온, 소위 '이론가' 그룹이기 때문이다. 한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이 참조된 '이론가'가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은 해당 그룹의 연구 지향 및 방법론상의 관심이 어느 정도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단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그룹 2의 경우 시기 1에 가장 많이 참조된 이론가는 레이먼드 윌리엄스였지만 시기 2에 가장 많이 참조된 이론가는 주디스 버틀러였다. 그룹 2의 시기 2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가 여성 문학사 연구자 및 박완서 전공자 그룹의 약진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주디스 버틀러의 부상 역시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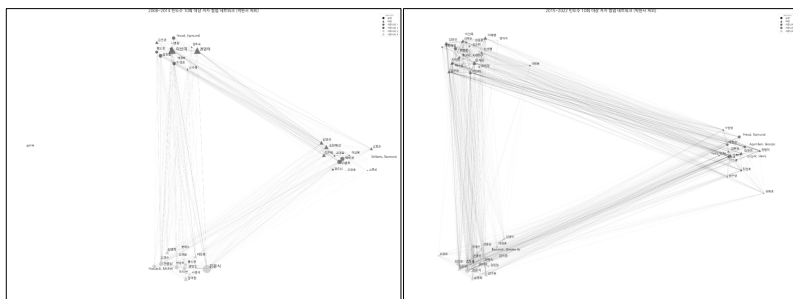


그림 4-5 박완서 인용 네트워크(2008~2014)

그림 4-6 박완서 인용 네트워크(2015~2022)

필자들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해 2008~2014년, 2015~2022년의 두 시기 동안 진행된 박완서 인용자들의 상호 인용 네트워크를 확인했다.<sup>35</sup>

인용 네트워크 분석 결과 시기 1(2008~2014)과 시기 2(2015~2022) 모두 세 커뮤니티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표 4-4).<sup>36</sup> 세 그룹 모두 2015년을 경유하면서 인적 구성상의 변동을 경험했는데, 각 그룹의 특징 및 성격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토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놓는다.

35 각주 10번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 활용된 시각화 자료는 모두 이 연구팀의 github 레포지토리에 업로드되어 있다. <그림 4-5>, <그림 4-6>, <그림 4-7>의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링크 참조. <https://github.com/ByungjunKim/TwoParkWansuh>

36 엄밀히 말하면 2008~2014년 구간에는 최인옥 1인으로만 구성된 소그룹이 하나 더 있다. 하지만 이 소그룹은 소설가 최인옥(崔仁旭, 1920~1972)의 문학 세계를 검토하기 위해 최인옥의 소설을 다수 인용했던 한 논문이 박완서의 저작도 인용하면서 형성된 일종의 ‘아웃라이어’이다. 하지만 이 아웃라이어의 존재는 오히려 이 그래프의 신뢰도를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박완서 저작과 동시 인용된 저작들의 인용 빈도를 통계적으로만 제시한다면, 해당 통계에서는 박완서의 저작을 인용한 ‘연구자들’이 최인옥의 저작 역시 동시 인용한 것처럼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래프는 최인옥이 다른 피인용 저자들과 동떨어진 별도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최인옥이 다른 피인용 저자들과 별다른 상관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표 4-4 박완서 인용 네트워크의 소그룹 및 시기별 변화

그룹	시기 1(2008~2014)	시기 2(2015~2022)
1	김윤식, 김미현, 전홍남, 이재선, 송명희, M.푸코, 이정희, 권영민, 김경수, 황석영, 서정자, 오정희, 변학수, 한승옥	김윤식, 김미영, 정미숙, 김미현, 권영민, 김윤정, 송명희, S.보부아르, 김병익, 조희경, 이창준, 이재선, 김원일, 김은정, 전홍남, 오정희, 최명숙
2	유종호, <b>조한혜정</b> , 백낙청, <b>김양선</b> , <b>김은하</b> , 김복순, 정홍섭, <b>이선옥</b> , <b>최경희</b> , 고정희, 조정래, R.윌리엄스	<b>오자은</b> , <b>김양선</b> , <b>이선미</b> , <b>이혜령</b> , <b>한경희</b> , <b>김은하</b> , <b>차미령</b> , <b>이선옥</b> , J.버틀러, <b>신섿별</b> , 백낙청, <b>조연정</b> , 김진희, 김복순, <b>김동춘</b> , <b>조한혜정</b> , 이봉범, 양귀자
3	<b>이선미</b> , 권명아, 정호웅, 이경호, S.프로이트, 김은경, 황도경, 나병철, 신수정, 정미숙, 박경리	<b>우현주</b> , 신수정, 김영미, S.프로이트, G.아감벤, 이평전, 권명아, 김은경, 강진호, 소영현, 지젝, <b>송은영</b> , 이푸투안, 정혜경
4	최인옥	

\* 진하게 표시한 것은 『여성문학연구』의 2011년 특집 관계자, 밑줄로 표시한 것은 2018년 특집 관계자다(학술 대회 및 학술지 특집 모두 포함).

- 1) (남성) 문학사가 + (여성) 비평가 → 문학사가 노년 문학 연구자
- 2) (여성) 문학사가 + 문학 외 연구자 → 여성 문학사가 + 박완서 전공자 + 문학 외 연구자
- 3) 여성 비평가 그룹 + 해외 이론가 그룹

이 중에서 『여성문학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룹은 <표 4-4>의 2번 그룹이다. 이 그룹은 시기 1에만 해도 유종호, 백낙청 등 남성 비평가와 김양선, 김은하, 김복순 등 여성 문학사 연구자들, 그리고 조한혜정, 최경희 등 인접 분야의 여성 연구자들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그룹은 시기 2에 이르러 여성 문학사 연구자, 그리고 박완서 문학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박완서 전공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새롭게 재편된 그룹의 구성원들을 관통하는 특징은, 이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문학연구』의 두 박완서 특집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술 대회에만 참여하고 특집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조한



그림 4-7 그룹 2의 시기 2(2015~2022)

혜정, 김동춘, 이해령 등도 포함된 것은 학회의 학술 의제 집적 및 확산의 역할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다.

두 기획에 관여했던 필자들이 2015년 이후 하나의 그룹(그룹 2)을 형성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여성 문학사 서술이라는 기획과 비교적 거리감을 갖고 있는 다른 박완서 연구 경향이 부상함에 따라 2015년 이후 학계에서 여성 문학사 연구자 및 박완서 연구자 그룹의 학문적 친밀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게 되었을 가능성이다. 또 하나는 2018년 특집 관계자 및 그 주변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 검토, 참조, 비판 등 다양한 형태로 2011년 특집 관계자들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함으로써 이들의 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을 요하는 연구자는 이선미이다. 2015년 이전 시기에 이선미는 그룹 3에 속했으며, 그룹 3 내에서 권명아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자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의 이선미가 주로 관계되는 그룹은 그룹 2로 변경한다. 시기 1, 2 모두 주요 피인용 연구자이면서도 관계된 그룹 자체가 변화한 경우는 이선미가 유일하다. 시기 1(2004~2014)에 발간된 논문들이 이선미를 인용하는 방식을 살펴보자면, 연구사

적 참고로서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한 부분을 인용하는 방식,<sup>37</sup> ‘페미니즘 측면’에서 해석한 사례로 언급하는 방식,<sup>38</sup> ‘기억’이 박완서의 소설 방법론임을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는 방식<sup>39</sup>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 2(2015~2022)에 발간된 논문들이 이선미를 인용할 때에는 그 맥락이 달라진다. 곧 선행 연구 검토 등을 통해 이선미의 연구를 박완서에 대한 ‘페미니즘적’ 연구의 대표 격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대신 이선미의 연구 성과를 직접적으로 활용 및 참조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박완서의 글쓰기에서 ‘여성’과 ‘정치’, ‘사회’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 대한 분석,<sup>40</sup> 당대 여성주의 담론과 박완서의 관계에 대한 분석,<sup>41</sup> 페미니즘적 연구 방법론의 보완 및 발전에 대한 제언<sup>42</sup> 등이 주로 참조되었던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선미 본인의 연구 경향이 실제로 변했느냐와는 별개로 — 이선미의 연구가 연구사 내에서 위치하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2018년 특집 관계자 및 그 주변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 검토, 참조, 비판 등 다양한 형태로 2011년 특집 관계자들의 논의를 지속

37 이수형, 2011,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죄의식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84~85쪽.

38 이은하, 2005,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글쓰기에 대한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8집, 242쪽.

39 이가야, 2011, 「마르그리트 뒤라스와 박완서 작품 속에 나타난 유년의 정체성과 장소」, 『비교문학』 제53집, 196~197쪽.

40 장영은, 2022, 「페미니스트 작가의 계급적 감정: 박완서의 남성 지식인 비판과 자기서사」, 『현대소설연구』 제87호, 183쪽; 선우은실, 2021, 「『저문 날의 삽화』 속 주부 화자의 젠더 정치성: ‘주부’의 관점에서 포착되는 젠더 문제 및 주부 공간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 제69집, 436쪽; 백윤경, 2022, 「1970년대 소설의 여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어문연구』 제114호, 409쪽.

41 문화, 2022, 「“제2의 성”이라는 명제의 서사화: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5호, 340쪽; 김문정, 2015, 「『도시와 흥년』에 나타난 여성상과 중산층의 형성」, 『한국문학연구』 제49집, 201쪽.

42 김미영, 2019, 「박완서 소설 속 돌봄 인식 방식 연구」, 『어문논집』 제72집, 195~229쪽.

적으로 환기함으로써 이들의 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선미의 사례가 보여주듯, 2011년 특집과 2018년 특집의 필진이 시기 1에든 시기 2에든 상대적으로 한 그룹 내에 결집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들 그룹의 학문적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010년대 들어 박완서 연구가 급격하게 진행됨으로써 새로운 박완서 연구가 축적되었다는 것은 박완서 연구자 집단이 세대적 구획이 가능할 정도의 양적 성장 및 질적 다양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세대 차이’는 2018년 특집에 참여한 기성세대 연구자와 — 2010년대 이후 새롭게 합류한 — 신진 세대 연구자 간의 입장 차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2018년 특집에 새로 참여한 신진 세대 연구자들과 김은하, 이선옥 등 앞세대 여타 필자들의 학술적 입장 차이는 ‘여성적 글쓰기’ 혹은 ‘여성성’ 담론에 대한 시각에서 확인된다. 이들 모두가 이른바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1990년대 이래의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그 극복 방법 면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김은하나 이선옥과 같은 기성세대 연구자들의 입장은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그간의 비판을 파훼함으로써 그간 부당하게 평가되어 왔던 ‘여성적 글쓰기’를 구명해야 한다는 것에 가깝다. 이를테면 김은하는 2011년 논문에서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상업적’인 특징은 ‘대중적’이라고 폄하받을 것이 아니라 여성적 저항으로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3</sup> 이와 같은 의견은 ‘여성성’, ‘대중성’, ‘상업성’의 결착을 갱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박완서 ‘재평가’는 결국 국 성별 이분법에 입각한 여성성을 박완서 문학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

43 “그러나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을 상업주의가 아니라 순결주의, 과잉 도덕화를 강제하는 가부장적 국가에 대한 히스테릭한 저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김은하, 2011,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 『여성문학연구』 제25호, 299쪽).



하는 시각을 전제로 해 이루어진 것이다.<sup>44</sup> 김은하의 이와 같은 ‘여성적 글쓰기’ 옹호는 2018년 특집 논문에서도 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 문학의 약진이 ‘문학의 연성화(軟性化)’로 이어졌다는 그간의 비평적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즉 여성의 글쓰기가 “묵직한 사회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편견을 깨트리며, 박완서는 한국의 압축 근대화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 혹은 역사가로서 문단을 사로잡”았음에 대한 옹호로 이어진다.<sup>45</sup>

이와 같이 ‘여성적 글쓰기’ 비판에 ‘여성적 글쓰기’ 옹호로 맞서는 수세적인 대응 전략은 2011년 특집에 참여했던 이선옥에게서도 확인된다. 이선옥은 박완서 문학의 성취를 ‘자전적 글쓰기’의 여성성이 잘 드러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에 ‘자전적 글쓰기’가 문학 비평장에서 ‘미숙함’의 동의어로 쓰였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일상과 체험을 드러낸 요소가, 그리고 소설과 수필의 경계를 흐리는 점이 여성 작가의 유효한 글쓰기 전략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선옥은 또한 ‘오정희류’와 ‘박완서류’ 작가를 대비시키며 ‘오정희류’를 선호하는 현상을 정전적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선옥의 글은 김은하의 글과 마찬가지로 박완서 소설의 체험적 성격에서 그 정치성을 찾는다고 볼 수 있다.<sup>46</sup>

2018년 특집에 참여한 신진 연구자들 역시 1990년대 문학 비평에 관점의 한계가 있음은 동의한다. 하지만 1990년대 문학 비평에 대한 이들의 대응은 그 한계를 비판하는 선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이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은 애초에 1990년대 문학 비평의 한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44 김은하, 2011, 앞의 논문.

45 김은하, 2018,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제45호, 10~15쪽.

46 이선옥, 2011, 「박완서 문학의 여성성」, 『여성문학연구』 제25호.

근본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신진 연구자들은 기성세대 연구자들이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성별 이분법 자체를 완전히 탈구축하는 새로운 시각의 창출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가령 한경희는 박완서의 글 쓰기가 다른 여성의 글쓰기처럼 “사회성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 결국 ‘여성적 글쓰기’ 자체에 대한 폄훼, 곧 여성적 글쓰기가 사인화(私人化)된 글쓰기라는 이분법 자체는 승인한 가운데 그 논리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sup>47</sup>

배상미는 1980년대 박완서의 소설인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 관한 2010년대 이전의 연구가 주로 소설에 묘사된 ‘젠더 갈등’에 대해 초점을 두었던 반면 2010년대 이후 연구는 이 소설들에서 ‘젠더 갈등’ 외의 다층적 측면을 찾아내려고 했다는 데 주목한다. 그러나 그는 ‘젠더 갈등’이 충분히 연구되었는지를 질문하며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의 재현 양상과 더불어 “여성을 사적 영역의 존재만으로 규정하는 토대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젠더 연구와 그 외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여성 문제’의 토대와 같은 도그마적 지층들을 포착해 낼 수 없음을 전제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sup>48</sup>

박완서 문학의 중산층 표상에 관심을 가졌던 오자은과 이은영 역시

47 한경희는 김은하의 논의가 “1980년대에 전개되었던 진보적 변혁운동 및 그 부문운동으로 진행된 여성민중운동까지도 일괄적으로 남성적 문화에 침윤되어있는 것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 창작 활동이 이와 같은 가부장적 담론장에서 소외되는 여성의 저항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로써 앞선 논의들이 탈피하고자 노력했던 여성 정체성의 본질화를 반복하는 한편, 의도치 않게 자본주의를 물질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이 유일하게 여성해방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라고 전제함에 따라, 박완서의 문학을 비롯하여 당대 여성해방문학이 추구했던 진보성을 간과한다”라고 비판한다. 한경희, 2021, 앞의 논문, 9쪽.

48 배상미, 2018,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 『여성문학연구』 제45호, 76~77쪽.

박완서 문학 속 중산층을 검토함에 있어 성별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 계급성과 젠더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스스로도 ‘중산층 남성’ 또는 ‘중산층 여성’ 등의 성별화된 표상에 주목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그 표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저 비판할 것이냐 상찬할 것이냐의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해 이들의 이중적 정체성 내 복잡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9</sup>

이와 같은 입장은 박완서 소설의 역사성에 대한 신선헌, 박성은, 우현주 등의 검토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의 지적은 박완서의 소설이 ‘여성의 관점’으로 한국 현대사를 증언해 왔다는 것, 혹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사를 통해 분단 현실을 증언했다는 사실에 대한 긍정적 평가<sup>50</sup>가 공/사, 역사성/미시성, 시민성/젠더성 등의 이분법적 프레임하에 이루어진 박완서 비판(즉, ‘여성의 관점’ 내지 ‘일상성’에 대한 폄하)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한다. 물론 그러한 반박에서 주장하는 성과들이 박완서 문학의 성과라는 주장 자체는 이들도 동의한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비판에 대한 수세적 반박이라는 전략이 결국에는 이분법적 프레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하고 박완서 소설의 성취를 사-미시성-젠더성의 영역 내 성과로 한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한국 현대사의 증언자’로서의 박완서의 성취는 “정체성·다원성의 정치(인정의 정치)와 경제적 해방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운동(분배의 정치)로 크게 양분되는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서 그 둘을 변증법적

49 오자은, 2018, 「‘중산층 남성 되기’의 문법과 윤리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제45호, 121쪽; 이은영, 2018, 「1970년대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의 망탈리테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45호.

50 박성은, 2018,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속 ‘마당’의 딜레마와 ‘빨갱이 바이러스’의 정치적 함의」, 『여성문학연구』 제45호.

으로 종합하는 새로운 길을 발명”하는 방식, ‘역사’와 구별되는 ‘일상’의 특수한 가치를 강조하는 대신 ‘일상’과 ‘역사’를 동일선상에 둬으로써 ‘자전적 글쓰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를 지양하는 방식,<sup>51</sup>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개인사만을 의미 있는 개인사로 평가하는 방식을 지양하는 방식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sup>52</sup>

이상의 검토에서 확인되듯, 2015년 이후의 여성 문학사가와 박완서 연구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것은 학문적 문제의식의 동질성이 아니다. 그보다 <그림 4-7>을 통해 구현된 소그룹은 ‘여성 문학(사)’이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해 모였으되 때론 결합하고 때론 경합함으로써 관련 담론을 생성하고 확장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집단 연구 체제이다. 요컨대 이 인용의 네트워크는 공감과 동의의 형태로만은 수렴되지 않는 ‘비판적 인용의 네트워크’로 판단되며 의제 갱신 공정에도 관여되어 있는 듯 보인다.

앞서 소개한 각 논문의 논의 자체는 박완서 문학 연구자, 특히 박완서 문학과 1980년대 여성 해방 문학 운동의 관계에 대해 주목한 바 있는 연구자라면 그리 낯설지 않을 설명들이다.<sup>53</sup> 다만 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 파편적으로 이해되곤 하는 그 각각의 논의들이 실제로는 어떤 체제하에서 생산되고 또 유통되는가의 문제이다.

51 신셋별, 2018, 「박완서 장편소설 『서있는 여자』의 페미니즘 정치학적 의미: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본 시민성의 젠더 구조」, 『여성문학연구』 제45호, 48, 63쪽.

52 우현주, 2018,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제45호, 189쪽.

53 가령 문화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을 읽고자 한 논의에서 김은하, 배상미, 신셋별 등의 『여성문학연구』 2018년 박완서 특집 논문들을 중요한 선행 연구 중 하나로 거론한다. 문화, 2022, 앞의 논문, 339~340쪽.

## 5. 결론

오늘날의 연구자 중에서 학술지를 통해 논문을 접하는 이는 매우 드물다. 물론 논문 자체는 학술지를 통해 출판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학술 논문을 접하게 되는 주된 경로는 학술지라는 편집된 결과물이 아닌, 학술 논문 포털의 검색 결과물 목록이다. 많은 학술지들이 종이책 출판을 중단하고 전자 저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학술지의 의제 생산 및 논제의 초점화와 관련된 권두언이 더는 실리지 않는 학술지가 점점 늘어나는 것 역시 연구자들에게 학술 논문을 인식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학술지’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술지 대신 ‘검색’이 학술 논문 탐색의 새로운 수단이 된 시대에도, 여전히 학술지가 학지의 생산 거점이자 유통 경로로 기능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다만 그 네트워크는 연구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잠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한 연구는 1980년대 들어 여성 지식인들이 “집단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었으며 학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무크 운동의 성취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전공, 세대, 여성 운동에 대한 시각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식인들이 하나의 세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크, 곧 잡지라는 지식 생산 제도의 힘이 작용한 결과였다는 것이다.<sup>54</sup> 2010년대의 박완서 문학 연구자들에게 학술지가 수행했던 역할을 이에 빗댈 수 있을까? 물론 즉각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많은 한계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술지와 학술 대회 등 학술 제도와 그 기획이 현대 문학 학술장 내 어젠다 설정과 확산을 위한 제도

54 이혜령, 2016, 앞의 논문, 423~424쪽.

적 장치로서의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젠더 문제를 중심에 둔 학적 운동의 사례가 바로 이러한 경우일 터이다.

이 글이 달성하고자 했던 또 다른 목적은 그간 선행 연구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왔던 가설, 곧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 박완서 연구의 질적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박완서를 인용한 논문들 전체에 대한 통계적 접근을 통해 전통적인 선행 연구 검토만으로는 확인되지 못하는 지점들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2015년을 전후로 해 ‘박완서 연구자’ 집단의 구성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입증했다. 2010년대 전반에는 ‘남성 연구자’들이 박완서 소설 인용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성 연구자’들이 박완서 소설 인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종래에 1970년대 소설과 정치사적 해석에 집중되어 있었던 박완서 소설 연구의 대상 및 주제가 1980년대와 그 이후의 소설들을 통해 정치와 삶의 지평 간의 연동이라는 문제로 재초점화되어 확산한 현상과 맞물려 있었다.

다만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작업들 역시 많이 남아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 글의 목표에는 박완서 연구의 변동을 견인한 이들이 ‘여성 연구자’ 범주임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 연구자’ 내 소그룹 간의 ‘차이들’을 분석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도 인용 네트워크 분석과 학술지별 수록 논문들의 질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 간 인용 네트워크가 동의뿐 아니라 비판적 지시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 글은 인용 네트워크 분석의 과정에서 큰 특징으로 포착된 변화의 구체적 지점들을 보다 논쟁적으로 해명하지는 못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저자들이 박완서의 저작들을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해 그룹 내 분기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양적 분석에 기초해 보충

적으로 시도한 비판적·질적 분석이 지닌 이러한 한계는 차후 박완서 저작의 각 시기별 주목 양상에 관한 통계적 접근과 인용 네트워크 내의 입장 차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인 박완서 관련 논문 총 411편 중 박완서의 소설을 참고 및 인용한 논문은 256편이다. 이 256편의 논문이 선행 연구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라벨링을 통해 분석한다면 시기별 인용 네트워크의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입체적으로 조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용 네트워크상 주요 저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박완서 저작의 경향을 토픽 모델링 결과와 함께 살펴본다면 박완서 저작 시대의 경향 변화와 그에 얽힌 관련 연구의 요동이 의미하는 바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접수일(2024.11.14), 심사 및 수정일(1차 2024.12.17., 2차 2024.12.26.), 게재확정일(2024.12.26)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1980년대, 박완서 소설과 사회: 초대의 글」.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한국 근대사와 박완서: 기획 및 초대의 말씀」.

### <단행본>

강수영·김보경·유현미·이송희·조승희·전준하·현수진·이우창, 2022, 『한국에서 박사하기: 젊은 연구자 8인이 말하는 대학원의 현실』, 스리제어스.

권보드레 외, 2018,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김윤식·정호용, 1993, 『한국소설사』, 예하.

샤를로테 블로크, 2019, 『열정과 망상: 학계의 감정문화』, 김미덕 옮김, 갈무리(Charlotte Bloch, 2019, *Passion and Paranoia: Emotions and the Culture of Emotion in Academia*, Routledge).

### <논문>

강수환, 2023, 「아동문학 연구의 지적 구조 분석(2010-2021년): 『아동청소년문학연구』와 『한국아동문학연구』의 저자 동시 인용망 분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33호, 463~502쪽.

권영빈, 2020, 「박완서 소설의 젠더지리학적 고찰」,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문정, 2015, 「『도시와 흥년』에 나타난 여성상과 중산층의 형성」, 『한국문학연구』 제49집, 190~218쪽.

김미영, 2019, 「박완서 소설 속 돌봄 인식 방식 연구」, 『어문논집』 제72집, 195~229쪽.

김병준, 2024, 「디지털인문학의 미래, 스마트 빅데이터: 독일 트리어 디지털인문학 센터 CLS 연구 펠로우 후기」, 『Digital+Humanities』 제30권 제3호, 57~70쪽.

김병준·전봉관, 2023, 「민족, 국민, 국가: 시계열 워드 임베딩을 활용한 조선일보 기사의 민족 담론 의미 변동 추적(1920-40)」, 『현대소설연구』 제90호, 5~38쪽.

김양선, 2006, 「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비평의 쟁점과 과제」, 『안과 밖』 제21호, 40~61쪽.



- \_\_\_\_\_, 2022,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여성문학의 계보 만들기: 한국여성문학사와 여성문학 앤솔로지의 필요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5호, 84~110쪽.
- 김은하, 2018,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제45호, 7~36쪽.
- 문화, 2022, 「“제2의 성”이라는 명제의 서사화: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5호, 335~370쪽.
- 박성은, 2018,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속 ‘마당’의 딜레마와 ‘빨갱이 바이러스’의 정치적 함의」, 『여성문학연구』 제45호, 158~182쪽.
- 배상미, 2018,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 『여성문학연구』 제45호, 73~117쪽.
- 백윤경, 2022, 「1970년대 소설의 여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어문연구』 제114호, 405~430쪽.
- 선우은실, 2021, 「『저문 날의 삽화』 속 주부 화자의 젠더 정치성: ‘주부’의 관점에서 포착되는 젠더 문제 및 주부 공간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 제69집, 429~458쪽.
- 신섫별, 2018, 「박완서 장편소설 『서있는 여자』의 페미니즘 정치학적 의미: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본 시민성의 젠더 구조」, 『여성문학연구』 제45호, 37~71쪽.
- 신현순, 2008, 「박완서 소설의 서사공간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자은, 2018, 「『중산층 남성 되기』의 문법과 윤리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제45호, 119~156쪽.
- \_\_\_\_\_, 2019,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현재성」, 『여성문학연구』 제48호, 30~59쪽.
- 우현주, 2018,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제45호, 184~224쪽.
- 유인혁, 2020,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근접성 없는 공동체와 친밀성의 테크놀로지: 『아주 오래된 농담』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88집, 169~184쪽.
- 윤조원, 2009, 「페미니즘과 퀴어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7권 제1호, 131~154쪽.
- 이가야, 2011, 「마르그리트 뒤라스와 박완서 작품 속에 나타난 유년의 정체성과 장소」, 『비교문학』 제53집, 195~222쪽.
- 이상경, 2011,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 『여성문학연구』 제25호, 7~27쪽.
- 이선미, 2001,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4, 「박완서 소설의 ‘공모’ 의식과 마음의 정치: 1987년 이후와 박완서 소설의 1970년대 서사」, 『반교어문연구』 제37집, 371~400쪽.
- \_\_\_\_\_, 2021, 「‘부역(혐의)자’ 서사와 냉전의 마음: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빨갱이’ 담론

- 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문학연구』 제65집, 345~378쪽.
- \_\_\_\_\_, 2023, 「속물(지배)사회, 허위의식, 말뚝의 총질: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허위의식’ 서사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94집, 267~296쪽.
- 이수형, 2011,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죄의식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83~110쪽.
- 이은영, 2018, 「1970년대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의 망탈리테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45호, 228~257쪽.
- 이은하, 2005,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글쓰기에 대한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8집, 225~258쪽.
- \_\_\_\_\_, 2006, 「박완서 소설의 갈등 발생 요인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연·한남기, 2022, 「제목과 주제의어 공기에 네트워크로 본 『상허학보』의 30년, 『상허학보』 제66집, 11~56쪽.
- 이택·류인태, 2022, 「데이터를 활용한 한중소설 비교 연구: 이태준의 〈농군〉과 리훤잉의 〈만보산〉을 대상으로, 『반교어문연구』 제60집, 159~198쪽.
- 이혜령, 2016,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제47집, 409~454쪽.
- 이희진·박소현·이유나·한수희·김바로, 2023,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한중 웹소설 플랫폼 비교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1호, 314~343쪽.
- 장영은, 2022, 「페미니스트 작가의 계급적 감정: 박완서의 남성 지식인 비판과 자기서사, 『현대소설연구』 제87호, 175~201쪽.
- 전성규, 2024, 「데이터로 읽는 『무정』의 감정, 『사이間SAI』 제36호, 15~52쪽.
- 전성규·김병준, 2019,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통한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담론적 상관관계 연구, 『개념과 소통』 제23호, 141~188쪽.
- 정미숙, 2016,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23~48쪽.
- 정보람, 2021, 「계량적 방법을 통해 본 한국 현대 ‘청년문학’과 ‘노년문학’ 연구사,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55호, 93~125쪽.
- 정연희, 2022, 「박완서 단편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여성가족로맨스’와 돌봄의 영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87호, 515~540쪽.
- 정우경, 2021,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 나타난 ‘돌봄 주체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3집, 85~112쪽.
- 최진석·김병준·허예슬·최주찬·황호덕, 2023, 「김윤식과 우리 시대, 인용의 인구사회학적 시

- 좌: 현대문학연구자의 성별 및 세대 별 김윤식 저술 인용 양상 연구(2004-2019)』, 『국  
제어문』 제96집, 305~346쪽.
- 최진석·김병준·서희경·이용희·이혜령·홍덕구, 2024, 「제1회 한국현대문학자 대화: 좌담: 학  
회란 무엇인가」, 『사이間SAI』 제36호, 301~336쪽.
- 한경희, 2021, 「박완서 작가 연구: 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예슬·김병준·최주찬·최진석, 2023, 「푸코의 초상: 한국 현대문학 학술장의 푸코 인용 양상  
변화, 2008-2021 KCI 등재 학술지 논문 참고문헌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제46집, 305~342쪽.
- 황호덕, 2019, 「김윤식의 문학 이유, 가치중립성으로서의 근대론과 젠더 트러블: 1990년대,  
김윤식의 비판적 전회와 여성작가론을 실마리로」, 『구보학보』 제22집, 149~188쪽.

Abstract

## Dual Perspectives on Wansuh Park — A Digital Analysis Explores Institutional and Gender Studies —

Jinseok Choi\*, Saeheon Choi\*\*, Byungjun Kim\*\*\*, Yesel Huh\*\*\*\*.

Joochan Choi\*\*\*\*\*. Hoduk Hwang\*\*\*\*\*

■ **Keywords:** Digital Humanities, Wansuh Park,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citation, journal, modern literature, KCI

Wansuh Park(1931~2011) is now considered a notable scholar. This study argues that her status, as such, results from some rapid changes which took place in the 2010s. By examining reviews of Park's works during the 2010s, this study identifies fluctuations in the scholarly appraisals of her work and discusses the extent to which they were influenced by the initiatives of contemporary literary journals.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the academic landscape of the 2010s led to a major shift in Wansuh Park studies, especially after her death in 2011, and with the 'feminism reboot' of 2015. Following up on this, the present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was a marked change in the citation frequency of Wansuh Park's works, and also checks the flow and content of research trends before and after 2015. Using statistical analysis and citation network

---

\*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 Ph.D.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Ph.D.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 Ph.D.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analysis, digital humanities are our basic methodology, but we also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uch quantitative means by some qualitativ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ender of the researcher was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tendency of academics to study Wansuh Park. Citation frequency analysis shows that male researchers cited Park more in the first half of the 2010s and female researchers more in the second half of the 2010s.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focus: male researchers focused on Park's works from the 1970s, especially during 2011, while female researchers cited her novels from the 1990s, starting in 2018. The reversal of the researchers' gender ratio has thus led to a diversification of their research objects. Second, keyword analysis shows that after 2015 there was an increase in gender-related terms, and also those associated with seniority, whereas the use of words related to the Korean War decreased. Third, through citation frequency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we found that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hub for Wansuh Park research since 2015. As well as publishing many articles connected with Wansuh Park, this journal has also established a network of Wansuh Park researchers who are academically linked through their citations. Thus, the current study effectively illustrates changes in the trend of Wansuh Park research since 2008, and also establishes how deliberate and motivated academic initiatives have driven these changes.